

분석의 목적

- 건설산업은 각국 경제에서 사회간접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택 및 각종 편익시설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음.
- 최근 ENR誌의 발표¹⁾에 따르면 2000년도 세계 건설산업의 투자규모는 3조 4천억\$에 이르며, 이는 세계 총생산의 10.6%에 해당.
- 이처럼 건설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Bon²⁾, Low³⁾, Crosthwaite⁴⁾ 등 소수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을 뿐임.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및 성장속도를 가진 세계 각국의 건설 투자 패턴 분석

- 특히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에 있어 건설산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발전 속도에 차이가 있는 국가들 사이에 건설산업의 투자 패턴은 어떻게 다른지 규명될 필요가 있음.
 -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비중 변화
 - 경제성장 속도와 건설투자 증가율과의 관계
 - 선·후진국 사이의 건설투자 규모 및 증가율 차이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세계 건설시장에서 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지역을 추정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 건설시장의 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함.

1) Tulacz, G.J. (2000), World market overview ; A look at a \$3.4-trillion market, Engineering News-Record, December 4, <http://www.enr.com/new/cover120400.asp>

2) Bon, R. (1990) The world building market 1970-85, in proceedings of the CIB International Symposium on Building Economics and Construction Management, Sydney, March 12-21, Vol. 1, pp. 16-47.

3) Low, S.-P. (1991) World markets in construction : a regional analysis & a country by country study,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9, pp. 63-78.

4) Crosthwaite, D. (2000),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a cross-sectional analysis,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18, pp. 619-627.

- 또한 우리 경제의 동태적 발전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위상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렴될 것인지를 가늠해 봄으로써 건설기업의 장기 경영전략에 기여코자 함.

사용 데이터

- 각국의 건설투자에 관한 통계는 최근 Engineering News-Record(ENR)에서 발표한 자료⁵⁾를 이용함.
 - ENR은 1998년 11월, 2000년 12월에 각각 1996~98년, 1998~2000년 기간동안의 150개국 건설투자액 및 각국 GDP에 대한 건설투자 비중을 발표.
 -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생산뿐만 아니라 중간투입까지 포함시킨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임.
 - 따라서 각국 경제에서 건설산업의 비중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보다 50~100% 높게 평가될 수 있음.
 - 본고는 분석의 객관성 및 통계적 안정성을 위해 특정 연도의 실적만을 활용하지 않고 1998년 및 2000년에 발표된 ENR의 자료를 통합하여 1996~2000년 기간동안의 160개국⁶⁾의 건설투자⁷⁾ 동향을 분석대상으로 함.
- 본 분석에서 사용한 인구, GDP 등 기타 자료는 UN 등에서 발표한 자료⁸⁾를 이용하거나, 통계 상호간의 관계를 이용해 도출함.

5) Tulacz, G.J. (2000), World market overview ; A look at a \$3.4-trillion market, Engineering News-Record, December 4, <http://www.enr.com/new/cover120400.asp>

Tulacz, G.J. (1998), World market ; A \$3.2-trillion world market, Engineering News-Record, November 30/December 7, pp. 35-68.

6) ENR의 1998년 및 2000년의 자료에 있어 일부 대상국가의 불일치가 있어 이를 포괄함.

7) 본고에서 '건설투자'라 함은 국민계정 체계에서 장래의 생산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본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와 중간투입을 더한 총산출의 개념으로 사용했음. ENR에서는 이를 'spending'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음.

8)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998 Revision". ; <http://www.xis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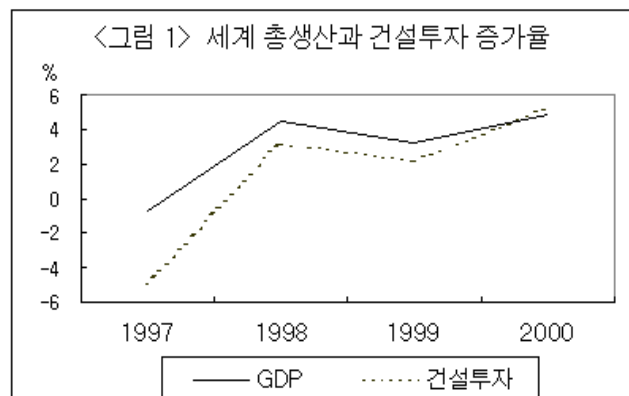
Statistics Division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an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http://www.un.org/Depts/unsd/social/inc-eco.htm>

세계 건설시장 개관

□ 시장 규모

최근 발표된 ENR誌에 따르면 2000년도 세계 건설산업의 총투자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5.2% 증가한 3조 4천억달러로, 세계 총생산의 10.6%로 추정

- 2000년 현재 세계의 건설시장 규모는 지난 해에 비해 5.2% 증가한 3조 4,133억\$(한화 약 4,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
- 북한, 리비아, 이라크, 쿠바, 아프가니스탄 및 건설 수요가 작은 일부 국가들은 정확한 통계입수가 어려워 제외됨. 이들 국가까지 포함시킨다면 세계 시장규모는 약 100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ENR誌는 추정함.
- 세계 건설투자는 세계 총생산의 10.6%로서 1996년 11.3%에 비해 다소 감소한 상태.
-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평균 건설투자 증가율은 1.4%로 세계 총생산액의 증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변화함.
- 이러한 세계 건설시장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불안 및 세계 최대 시장이던 일본의 경제침체 및 엔화의 평가절하에 따라 1997년 5.0%나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뚜렷한 증가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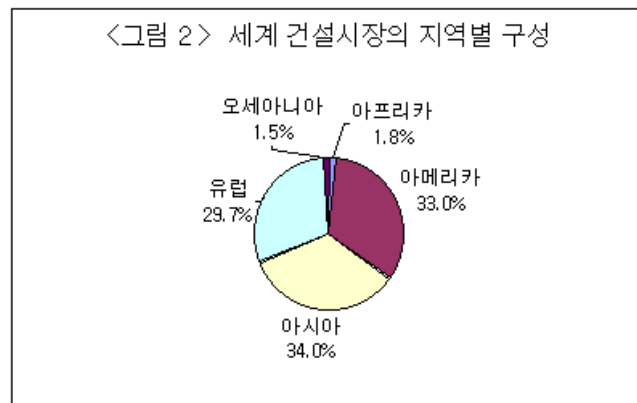


□ 지역별 구성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이 각각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시장을 3분하는 양상, 특히 아메리카 시장은 연평균 6.9% 증가하면서 세계시장 규모확대를 주도

－ 지역별 시장구성을 보면 아시아 시장이 상대비중뿐만 아니라 절대규모에 있어서도 크게 축소되면서 아메리카, 유럽 시장과 함께 각각 1조\$를 상회하면서 세계 시장을 삼분하고 있음.

■아시아지역의 경우 극동지역이 아시아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중동지역이 8%, 동남아시아가 5%를 점유.



<표 1> 지역별 건설시장 규모

단위 : 10억\$

	1996	1997	1998	1999	2000
아프리카	48	52	57	55	60
아메리카	864	921	1,009	1,058	1,126
아시아	1,200	1,093	1,138	1,126	1,162
유럽	1,079	961	927	957	1,015
오세아니아	44	46	45	47	50
세 계	3,234	3,073	3,175	3,243	3,413

■특히 1996년 이후 아시아 시장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아시아 개도국들의 외환위기, 유럽은 통화가치 불안 등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아시아 지역은 377억\$, 유럽 지역은 636억\$ 감소하여 그 비중이 3~4% 포인트씩 감소하였음.

- 이에 반해 아메리카는 주로 미국 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세계 건설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음. 4년 동안 미국의 건설시장은 총 2,203억\$ 증가하여 세계시장 전체 증가규모 1,789\$보다도 오히려 큼.
- 1996년 이후 4년간 세계시장은 연평균 1.4% 증가. 최대 시장인 아시아는 -0.8%, 유럽은 -1.5% 감소를 기록한 반면, 아메리카는 연평균 6.9%의 가장 빠른 신장세를 보임.

<표 2> 지역 건설시장 신장율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96~2000
아프리카	8.5	9.2	-2.9	8.9	5.8
아메리카	6.7	9.5	4.9	6.4	6.9
아시아	-8.9	4.1	-1.0	3.2	-0.8
유럽	-10.9	-3.5	3.2	6.0	-1.5
오세아니아	3.9	-2.2	3.8	7.2	3.1
세 계	-5.0	3.3	2.1	5.2	1.4

거시경제와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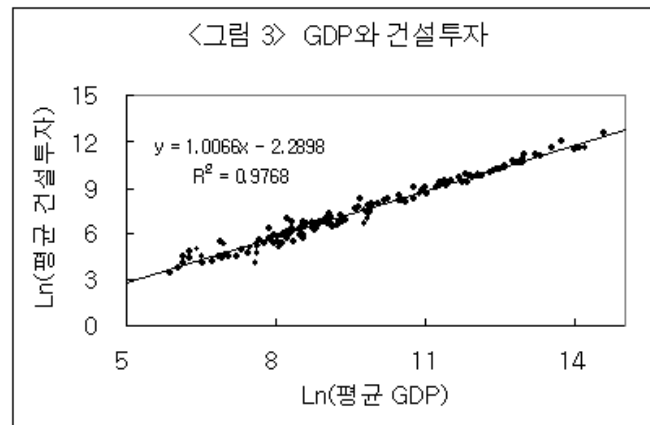
□ GDP 수준과 건설투자 규모

- 본 분석을 통해 GDP수준과 건설투자 사이에 매우 뚜렷한 선형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하였음.

GDP 수준과 총 건설
투자 사이에는 뚜렷
한 선형관계가 성립

-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160개국의 평균 GDP 및 평균 건설투자를 로그 변환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GDP와 건설투자 규모간에는 거의 완벽한 선형관계가 성립됨을 보여줌.
- 회귀식의 기울기가 약 1로서 GDP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투자액도 이에 정확히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나타냄. 결정계수도 약 0.98로서 매우 높은 편임.

-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횡축이 1인당 GDP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이라는 사실임. 따라서 이것은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에 비례하여 건설투자가 증가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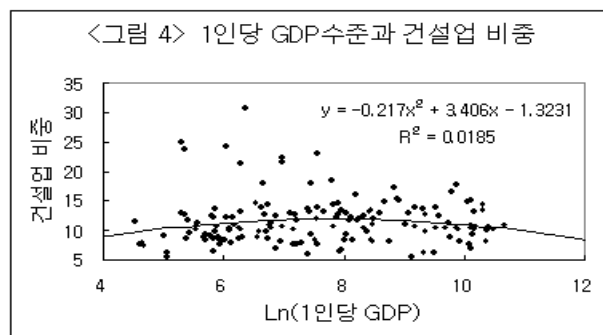


□ 1인당 GDP와 건설투자비중

소득수준과 전체 경제에 대한 건설투자 비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짐

- 한편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저소득 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점차 증가하여 약 2,500\$에서 12%로 최고 수준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완만한 逆 U字 형태를 취함⁹⁾.

- <그림 4>와 같이 건설투자 비중은 최저 5% 수준부터 최고 30% 수준까지 있음.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것은 저소득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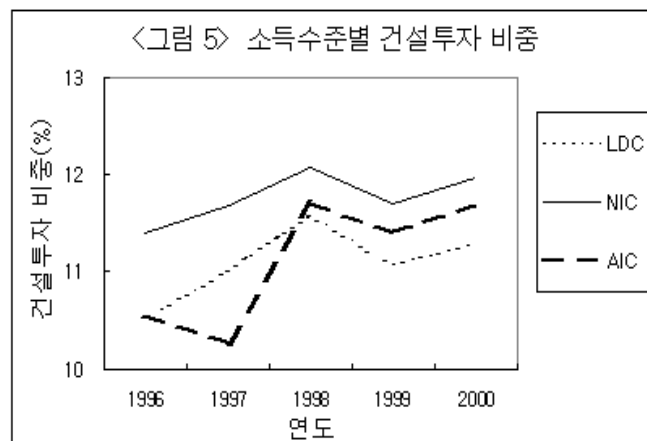
9) Equatorial Guinea의 경우 건설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1996년 85.3%, 97년 48.5% 이르는 등 예외적으로 높으나, 건설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01%에도 미치지 않아, 편향된 영향만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시킴.

선·후진국간의 건설
투자 평균비중은 1%
범위 이내로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투자 비중
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름

▪그러나 결정계수 값이 매우 낮고, 커브의 기울기도 완만하여 1인당 GDP가 4만\$에 달한 경우에도 건설투자의 비중은 약 10%를 유지함으로써¹⁰⁾ 소득수준과 건설투자 비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을 보여줌.

－ 이러한 사실은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저개발국, 신흥공업국, 선진공업국¹¹⁾ 등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 평균 건설투자 비중을 비교해 보아도 나타남. 즉 신흥공업국의 건설투자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룹간 격차는 1% 범위 이내로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음.

▪따라서 경제 발전정도에 따라 건설산업의 비중이 크게 상이할 것이라는 인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 다만 각 그룹의 건설투자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됨.



10) 실제로 1998년 현재 1인당 GDP가 \$43,47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Luxembourg의 경우에도 건설투자 비중은 13.6%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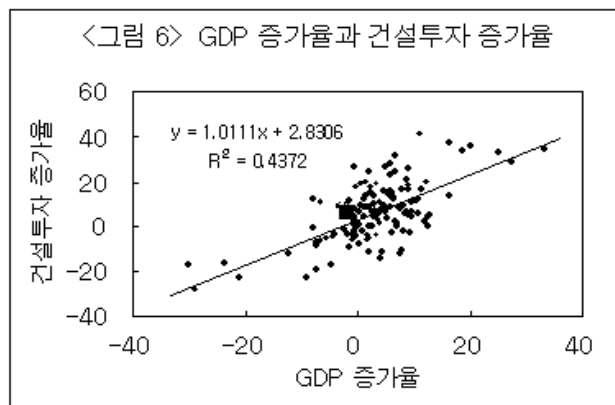
11) 소득수준에 따른 구분은 세계은행의 기준에 따라, 저개발국(LDC)은 1인당 GDP가 755\$ 이하, 신흥공업국(NIC)은 756~9,265\$, 선진공업국(AIC)은 9,266\$ 이상인 국가로 구분함. The World Bank (2000),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Attacking Poverty, Oxford University Press.

□ 경제 성장률과 건설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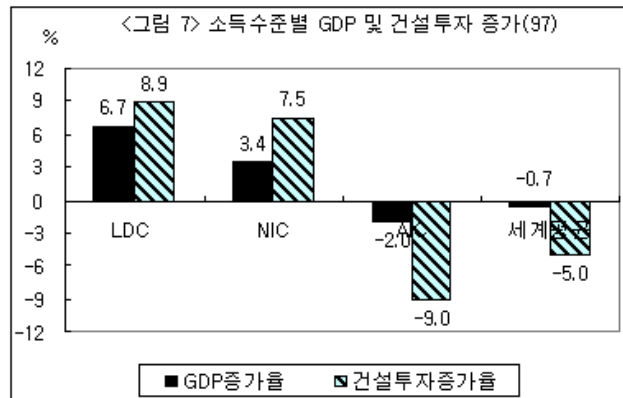
- 건설산업의 투자는 자본재에 대한 투자로서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위 가속도원리가 적용되는 산업 분야임. 따라서 경제성장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가속화되며 경제 침체기에는 둔화 속도가 커지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짐.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각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과 건설투자 증가율은 대체로 정비례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우에는 건설투자가 추세 이하이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경우에는 추세 이상으로 나타남

- 다음의 <그림 6>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건설투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회귀식의 기울기가 1로서 양자는 정비례관계에 있음을 나타냄.
- 또한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우에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추세선 밑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경우에는 주로 추세선 위에 있어 가속도원리가 대체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다음의 <그림 7>은 비교적 변화가 컸던 1997년도의 세계 총생산 및 건설투자를 1인당 GDP수준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여 각 그룹의 평균 변화율을 나타냄. 그림에서 보듯이 플러스 경제성장을 한 그룹의 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며,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한 경우에는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건설투자율을 보여 가속도원리가 적용됨을 보여줌.



세계 건설시장 동향

□ 총 건설투자 규모

미국과 일본의 건설 투자규모는 세계 전체 투자의 40% 이상을 점하는 압도적 위치에 있고, 한국은 세계 9위로 전체의 2.2%를 차지

- 세계 건설시장은 미국과 일본 등 2개국이 전체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한 시장규모를 가짐.
 -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평균 건설 투자액¹²⁾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7,040억\$로 세계 시장의 21.8%를 점유하고 있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일본으로 6,330억\$로 19.6% 점유.
 - 1996년까지는 일본이 세계 건설시장의 22%를 점유하면서 최대 시장을 형성했으나, 일본 경제의 침체로 인한 발주 부진과 엔화의 약세로 인해 1997년 이후 미국에 이어 2위로 밀림.
 - 이들 2개 국가를 포함한 독일, 중국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 이러한 건설투자 점유비중은 GDP 점유비중과 거의 일치를 보임.
- 한국의 연평균 건설시장 규모는 725억\$(약 87조원)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의 2.2%를 점유.

12) 경기변동에 따라 건설투자액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1996~2000년 사이의 평균값을 이용.

<표 3> 건설투자 상위 20개 국가

단위 : 백만\$, %

순위	국 가	연평균 건설투자	세계시장 점유비중
1	미국	703,998	21.8
2	일본	632,937	19.6
3	독일	290,102	9.0
4	중국	163,775	5.1
5	브라질	101,787	3.2
6	프랑스	101,753	3.2
7	영국	100,347	3.1
8	이태리	93,874	2.9
9	한국	72,474	2.2
10	스페인	70,920	2.2
11	캐나다	63,661	2.0
12	인디아	50,751	1.6
13	러시아	47,425	1.5
14	멕시코	40,474	1.3
15	네덜란드	40,211	1.2
16	호주	39,553	1.2
17	아르헨티나	33,161	1.0
18	대만	30,055	0.9
19	스위스	27,709	0.9
20	벨기에	26,431	0.8
	소 계	2,731,400	84.6

* 1996 ~ 2000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건설투자

□ 1인당 건설투자 규모

- 국민 1인당 건설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1996년 까지는 일본이었으나 최근 룩셈부르크로 바뀜.

1인당 건설투자액 상
위 20개 국가중 14개
국이 유럽 국가이며
한국은 세계 29위

- 룩셈부르크는 연간 5,507\$(연간 660만원)으로 세계 150개 국가의 1인당 평균 투자 580\$의 10배 규모.

- 1인당 건설투자 상위 20개 국가의 1인당 GDP는 평균 약 2만 6천\$에 이르는 선진공업국가들로서 14개국이 유럽지역에 분포함.

-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건설투자 규모는 1,456\$로서 세계에서 29위 수준으로서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건설투자 수준이 다소 높은 편.

<표 4> 1인당 건설투자 규모 상위 20개 국가

순위	국가	1인당 건설투자(\$)
1	룩셈부르크	5,507
2	일본	4,876
3	싱가포르	4,873
4	아일랜드	4,808
5	아이슬랜드	4,310
6	노르웨이	3,925
7	스위스	3,784
8	오스트리아	3,665
9	아랍 에미레이트	3,390
10	덴마크	3,193
11	독일	3,073
12	핀란드	2,953
13	미국	2,943
14	스웨덴	2,875
15	벨기에	2,863
16	네덜란드	2,679
17	쿠웨이트	2,610
18	오스트레일리아	2,293
19	포르투갈	2,234
20	스페인	2,180
	평 균	3,452

□ 건설투자 증가

- 러시아는 연평균 건설투자가 36%에 달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스페인 역시 건설투자가 급격히 증가
- 최근 2년간의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유럽, 중남미, 중부 아프리카 지역들을 중심으로 건설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러시아는 연평균 34%를 상회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투자규모 세계 10위의 스페인 역시 17.6%의 빠른 신장세가 주목됨.
- 건설투자 증가율이 높은 국가들은 아일랜드, 아랍 에미레이트 등 유럽 및 아시아의 5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1인당 GDP가 5천\$ 이하인 개도국들로 이루어짐.

비교적 건설시장 규모가 크고 투자증가율이 빨라 해외 건설시장 진출시 검토가 요망되는 국가로는 러시아, 스페인, 인디아, 멕시코 등이 있고, 미국 역시 연평균 7.3% 증가율을 기록 34위에 이릅니다.

- 상위 20개국이 세계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로서 높지는 않지만, 해당 국가 경제에서의 건설투자의 비중은 평균 15%로서 상대적으로 높음.
- 이들 건설투자 증가율 상위 20개 국가 중에서 세계 시장의 1%를 넘는 비교적 큰 시장을 갖고 있어 해외 건설시장 진출시 검토가 요망되는 국가로는 러시아, 스페인, 인디아, 멕시코가 있음.
-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최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3%의 증가를 기록하여 34위에 이릅니다.

<표 5> 건설투자 증가율 상위 20개 국가

순위	국가	증가율(%)	점유율(%)
1	러시아	34.3	1.10
2	차드	28.8	0.01
3	모잠비크	26.3	0.02
4	아일랜드	21.5	0.51
5	포르투갈	19.8	0.55
6	카메룬	18.3	0.03
7	스페인	17.6	2.51
8	파푸아 뉴기니	17.6	0.02
9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17.5	0.02
10	도미니카	16.9	0.13
11	니카라과	16.5	0.01
12	태국	15.7	0.45
13	알바니아	14.5	0.01
14	인디아	13.3	1.65
15	부탄	13.3	0.00
16	사우디아라비아	13.2	0.67
17	멕시코	12.1	1.30
18	코스타리카	12.0	0.03
19	벨리즈	11.7	0.00
20	아랍 에미레이트	11.0	0.23

□ 건설투자 비중

- ENR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각국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건설투자 비중에 대한 평균은 11.8%인 것으로 밝혀짐.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에 대한 건설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적도기니로 1996년에 85%를 기록하였으며,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타지키스탄으로 3%에 불과, 한국은 세계 17위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적도기니로 96년에는 무려 85.3%에 이르렀으나 그후 감소하여 98년에는 39.1%에 이름.
- 건설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타지키스탄으로 3%에 지나지 않으며, 저개발국중 많은 국가들이 10% 이내의 범위에 밀집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1996 ~ 2000년까지의 평균 건설투자 비중은 17.1%로 세계 17위이나, 점차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표 6> 건설투자 비중 상위 20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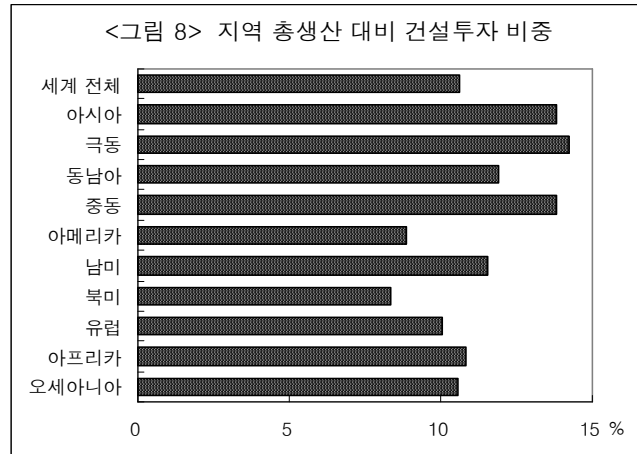
순위	국 가	건설투자 비중*(%)
1	적도 기니	57.6
2	투르크메니스탄	30.9
3	부탄	24.9
4	레소토	24.3
5	에리트리아	23.8
6	도미니카	23.0
7	버어드	22.4
8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1.6
9	아제르바이젠	21.4
10	수리남	18.5
11	중국	17.9
12	알제리아	17.9
13	아랍 에미레이트	17.6
14	한국	17.1
15	카타르	16.6
16	유고슬로비아	16.3
17	에스토니아	16.1
18	사우디 아라비아	15.3
19	세이셸	15.2
20	싱가폴	15.1
	상위 20위 평 균	21.7

*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건설투자 비중의 평균

- 한편 건설투자 비중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아시아지역이 13.8%로 가장 높고 아메리카가 8.9%로 가장 낮음.
-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지역이 14.2%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동으로 13.8%임.

총생산에 대한 건설
투자 비중은 극동지
역이 14.2%로 가장
높고, 북미지역이
8.4%로 가장 낮음

- 북미지역의 건설투자비중은 8.4%로 가장 낮는데 이것은 세계 최대 건설시장인 미국의 경우 평균 건설투자 비중이 8.1%로 낮기 때문.



결 론

- 이상에서 최근 발표된 ENR의 세계 각국의 건설투자 활동에 관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경제발전 단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 일국의 총 건설투자 규모는 전체 GDP 규모와 비례하여 증가함.
- 전체 국민경제에 대한 건설투자의 비중은 1인당 GDP수준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약함.
- GDP증가율과 건설투자 증가율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나 경기국면에 따라 호황기에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더 크지만 침체기에는 더 작음.
- 세계 건설시장은 지난 4년간 연평균 1.4%의 저조한 성장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대 시장이었던 일본 및 아시아 각국의 경제침체에 기인한 바가 큼.

소득수준에 따라 건설투자 비중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 총 건설투자는 GDP규모와 비례하며, 또한 경제성장률과 건설투자증가율은 매우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 그림에도 불구하고 세계 건설시장이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건설투자 증가의 45% 정도에 이르는 물량이 늘어난 미국 시장의 활황에 힘입은 바가 큼.
- 최근에 건설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지역은 동유럽, 중남미, 중부 아프리카 지역이 대표적임.
 - 이와 같이 건설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러시아, 스페인, 인디아, 멕시코 등은 시장규모도 비교적 크기 때문에 해외건설 진출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러시아는 최근 2년 사이에 연평균 34%의 매우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됨.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9, 11층
TEL : (02)3441 ~ 0600(代) FAX : (02)3441 ~ 0808
Home page : www.cerik.re.kr